

[ 사회 ]

# 대입 정시 18만7천명 모집

## 2007학년도 요강 발표 지난해보다 7% 감소

2007학년도 대학입시 정시모집에서는 전국 199개 4년제 대학이 총 18만7천325명의 학생을 모집한다. 광주·전남 20개 대학은 모두 1만2천12명을 선발한다. <관련기사 9면>

원서접수는 '가/나/가나'군 대학이 12월21~26일, '다/가다/나다/가나다'군 대학이 12월22~27일이며 '가/나/다'군별 전형은 12월28일부터 내년 2월2일까지 차례로 실시된다.

### ■정시모집 기본 일정

구분	전형기간	합격자발표	등록기간
가군	2006. 12. 28 ~ 2007. 1. 11		
나군	2007. 1. 12 ~ 1. 22	2007. 2. 2일 까지 발표	2007. 2. 3 ~ 2. 6
다군	2007. 1. 23 ~ 2. 2		

원서접수

- 가군, 나군, 가나군: 2006. 12. 21 ~ 26(일)간
- 다군, 가다군, 나다군, 가나다군: 2006. 12. 22 ~ 27(일)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4일 이런 내용의 2007학년도 정시모집 대학입학 요강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2007학년도 모집인원은 정원 내 17만8천131명, 정원외 9천194명 등 모두 18만7천325명으로 전년도 20만7천73명에 비해 1만3천448명(7.0%) 감소했다.

이는 수시모집 인원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정시모집 인원이 줄어든데다

각 대학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입학정원을 감축함에 따른 것이다.

다만, 현재 진행중인 수시 2학기의 합격자 등록 결과에 따라 정시모집 인원이 다소 늘어날 수는 있다. 각 대학은 입학원서 접수 전에 각 모집단위의 모집인원을 변경해 공고하게 된다.

전형별 모집인원은 일반학생전형이 17만1천499명으로 전체의 91.55%를 차지하고 있다. 특별전형 모

집인원은 1만5천826명(8.45%)이다.

지난해 원서접수 때 발생한 '서버 다운' 사태를 막기 위해 올해는 원서접수 기간을 균별로 나눴다. '가/나/가나'군 대학이 12월21~26일, '다/가다/나다/가나다'군 대학이 12월22~27일에 각각 원서를 접수한다. 대학에 따라 인터넷으로만 접수하는 곳도 있고 창구 접수를 병행하는 곳도 있다.

군별 전형기간은 '가'군이 12월28일~1월11일, '나'군이 1월12~22일, '다'군이 1월23일~2월2일이며 합격자 최초 등록기간은 내년 2월3일부터 6일까지다. 추가모집은 2월17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된다.

2007학년도 정시모집 대학 모집요강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교협 인터넷 홈페이지(www.kcue.or.kr)에서 볼 수 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 /인터뷰/ 정봉채 신임 전남지방경찰청장

## “준법시위 문화 정착되도록 불법·폭력시위 적극 대처”

“신진국 도약의 발목을 잡고 있는 폭력을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해야 할 것입니다.”



신임 정봉채(50·사진) 신임 전남지방경찰청장은 4일 취임식 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시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준법시위 문화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청장은 이어 “정부가 불법과 폭력에 대해서는 강력한 ‘무관용 원칙’을 밝혔지만, 무엇보다 폭력시위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것은 경찰의 확고한 의지와 노력”이라며 폭력시위 근절에 강한 의욕을 내비쳤다.

그는 이를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사전에 정확히 분석해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위 현장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청장은 또 “경찰의 기본책무인 민생치안 확립에 한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며 “지역사회의 ‘치안 안전망’을 더욱 견고하게 짜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에 적당주의와 대중주의는 결코 융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철저한 치안확립과 더불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높아진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찰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 출신인 정 청장은 행정고시 합격 후 경계기확원 예산실 서기관으로 근무하던 중 1995년 경찰청 예산담당관(총경)으로 특채됐다. 화순경찰서장·서울 강남경찰서장·경찰청 정보통신관리관·서울청 생활안전부장·경찰청 경무기획국장 등을 역임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추위, 낮부터 풀려**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조금 끼겠다.

**12월 5일**  
(음 10월 15일)  
◇전국날씨

광주	구름조금	0~9℃
대전	구름조금	0~9℃
대구	구름조금	3~10℃
부산	구름조금	1~9℃
서울	구름조금	-2~10℃
인천	구름조금	-2~9℃
경기	구름조금	-3~9℃
충청	구름조금	-1~11℃
전남	구름조금	-3~10℃
전북	구름조금	-2~9℃
강원	구름조금	-1~9℃
제주	구름조금	-1~8℃
울릉도	구름조금	-5~8℃
독도	구름조금	-1~8℃

서해남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1.5m  
서해북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0.5~1.0m  
남해남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1.5m  
남해북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1.5m

목포 밀물 < 01:33 썰물 < 06:57  
14:28 썰물 < 19:45  
여수 밀물 < 09:14 썰물 < 02:35  
21:14 썰물 < 15:20

▲해돋이 07:25 ▲해질 17:20 ▲달돋이 17:13 ▲달지기 07:39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주간날씨

날짜	6(수)	7(목)	8(금)	9(토)	10(일)	11(월)
날씨						
최저/최고	0/12	8/11	6/10	4/11	2/11	2/12



어르신 겨울나기 안전하게  
광주시 서구청은 4일 전기·도목·건축 등 관련 분야 합동 점검팀을 구성, 관내 독거 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설비와 건축을 주변 측대 및 용역의 안전상태에 대한 점검을 벌였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내년부터 소금으로 제설작업 도로오염 모래 안쓰고 염화칼슘도 대폭 줄여

매년 겨울철 도로 제설 작업 때마다 도로 오염의 주범으로 지적됐던 모래가 제설현장에서 사라지고, 환경오염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염화칼슘도 사용량이 대폭 줄어든 전망이다.

전남도는 4일 도로제설의 효과 높이고, 염화칼슘 및 모래를 사용하는데 따르는 환경오염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래 대신 소금을 사용하는 ‘습염식 제설방법’을 내년 1월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습염식 제설방법은 염화칼슘과 소금을 3대 7의 비율로 섞은 뒤 이를 녹인 용액을 기계로 사용해 도로에 살포하는 방식으로, 일부 고속도로에서는 이미 사용되어 왔으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도입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종전까지는 분말상태의 염화칼슘과 모래를 섞어 사람이 직접 도로에 뿌려왔다.

새 방식을 사용할 경우 염화칼슘 사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는데다, 모래를 사용하는데 따른 먼지 및 도로 오염과 같은 각종 부작용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도로 1km를 제설하는데 드는 비용도 종전의 2만3천원보다 8천원(35%) 적은 1만5천원 미만 충분한다. 제설 속도도 시간당 15~20km에 불과했던 기존 방식보다 3배 이상 빠른 40km로 높아졌다.

전남도는 우선 제설량과 교통량이 많은 나주와 담양, 함평, 영암, 영광, 장성 등 6개 시·군에 습염식 장비 구입비 3억3천800만원을 지원, 시범 실시한 뒤 효과를 분석해 도내 전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홍경기기자 redplane@

**가짜 참기름 설 땅 없어진다** 식약청 진위판별 기준 마련 에루스산 검출되면 ‘가짜’

가짜 참기름과 진짜 참기름의 차이는 무엇일까?  
참기름은 소비자의 불신을 받는 대표적인 식품 중 하나. 참기름을 만들면서 콩·유채씨·옥수수·들기름 등 다른 식용유지를 섞어 만드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식품당국이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 규격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참기름의 지방산 함량에 따른 특성을 근거로 모든 참기름에는 리놀렌산(Linolenic acid)이 0.5% 이하로만 들어 있어야 한다. 에루스산(Erucic acid)이 검출되면 진짜가 아니다.

식약청 위해기준팀 이동하 팀장은 “참기름 진위판별 규격 시행으로 가짜의 제조·유통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며 “참기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 익산 시 살처분·매립 완료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잇따라 발생한 전북 익산지역 닭 등의 살처분 작업이 4일 모두 마무리됐다.

4일 익산시 AI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공무원과 ㈜하림 직원 등 100명의 인력이 투입돼 남은 2만5천 마리의 닭을 살처분했다.

이로써 지난달 19일 익산시 함열읍에서 최초로 AI가 발병한 지 보름 만에 반경 3km 안에 있는 77만1천 마리의 닭이 모두 살처분돼 매몰됐다.

이날 살처분 및 매립작업에는 국회 조배소 의원(익산 을)과 이한수 익산 시장이 4일째 참여했다.

방역분부는 2차 AI 발생 이후 9일째 추가 발생신고가 없어 확산이 차단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경계 범위(반경 10km)를 넘어 또 다른 감염 사례가 확인될 경우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어 방역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소규모 농가를 포함해 농장 등의 모든 살처분 및 매립작업이 오늘 마무리됐다”면서 “추가 발병을 막기 위해 당분간 방역 체계 및 통제조소를 지금처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학교 신·개축공사 하자 수두룩

전남을 44개교 64건

전남 초·중·고등학교의 신·개축공사에 지붕과 벽체 누수 등 하자 발생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들어 9월 말까지 초·중·고교의 신·개축공사와 관련, 44개교에 64곳(1개교당 1.5곳)의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23개교 35곳, 중학교 11개교 17곳, 고등학교 10개교 12곳 등이다.

하자 내용별로는 지붕과 벽체 누수가 전체의 66.7%인 40곳에 달했고, 마감재 들뜸 현상 등 6건, 전기·설비 이상 2건, 바닥 들뜸 현상 1건, 기타 15건이다.

특히 목포 H초등학교 8건, 목포 H중학교 5건, 곡성 O초등학교 4건, 광양 B고등학교 3건 등 일부 학교에서 다수의 하자가 발생했다.

지난 2005년 하자 발생 건수는 16개교 16곳, 2004년 45개교 46곳 등 평균 1개교당 1곳으로 올해보다 적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ANTIQUE FURNITURE GAMERDING**

30여년 빛고을 명품가구 박람회 기념 SALE

목포점: 목포시 78,000원  
곡성점: 곡성시 78,000원  
장성점: 장성시 78,000원

오전 10시 ~ 오후 5시 까지 100% 할인  
문의: 064-744-1109 www.gamerding.com